

교과부,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 시도

조선대 정상화 늦어지나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조선대,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들 대학의 과정 운영이 연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이들 4개 대학 중 한 대학의 정이사 선임을 접고 임시이사 파견을 사학분쟁조정위에 제의했다가 사학분쟁조정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 스스로 정이사 체제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고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들 4개 대학에 더 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을 초부터 정상화 방

안을 추진해왔다. 조선대 등은 대학 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이 놓고 전 세단층과 현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총회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총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대학측은 비리 의혹 등으로 물러난 구 재단이 정권이 바뀐 틈을 타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구 재단총회는 더구나 사학분쟁조정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관리 대상 조폭 500여명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른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광주·전남 지역에만 500여명에 달하며, 이 같은 숫자는 전국 관리대상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이 한나리당 유흥현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폭력조직은 모두 221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5천41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청이 28개파 899명으로 관리대상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 23개파 504명 ▲전북청 15개파

493명 순이었으며, 광주청은 8개파 304명, 전남청은 6개파 187명으로 분석됐다. 부산청은 23개파 365명, 대구청은 12개파 315명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관리대상 조폭은 지난 2004년 499명에서 2006년 474명까지 줄었다가 최근 49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관리대상 조직 수는 소폭 줄었으나, 구성원 수는 늘어나는 등 조직이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취업 페스티벌 북적

광주 서강정보대학과 노동부가 주최한 2008년도 취업페스티벌이 23일부터 이틀동안 서강정보대에서 열렸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로 취업상담창구가 붐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치 폐교 482개… 전남 178개로 최다

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82개에 달하고, 특히 전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

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휴게소 유통 메뉴 '복분자 낙지 연포탕'

맛자랑 대회 최우수상

"정읍(상행선) 휴게소에 가면 '복분자 낙지 연포탕'을 드셔 보세요."

정읍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분자 낙지 연포탕'이 23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찬섭)가 개최한 '2008 고속도로 휴게소 맛자랑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도공 호남본부는 '복분자 낙지 연포탕'이 맛은 물론이고 고객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훌륭한 식단이어서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 이어 우수상은 백양사(하행선) 휴게소의 '쌀가스'와 지리산 휴게소(순천 방향)의 '지리산 산나물 영양비빔밥'이, 장려상은 섬진강 휴게소(순천 방향)의 '청매실 쭈꾸불고기', 정읍(하행선) 휴게소의 천연 뽕삼계탕 등이 각각 선정됐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상행선) 휴게소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호남지역 총 22개 휴게소에서 출품한 10가지 음식이 출품됐으며, 현지에서 직접 조리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평회를 통해 최고의 맛을 선정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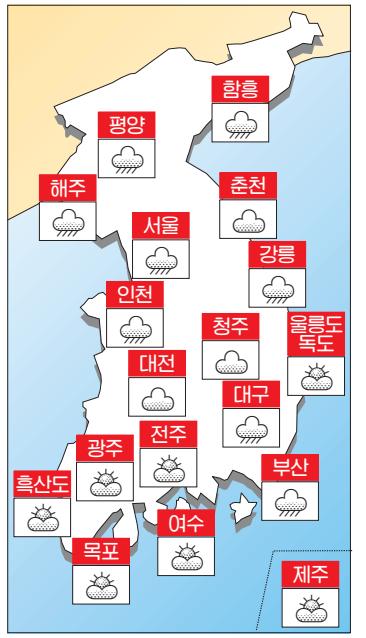
선선한 가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9월 24일

(음 8월 25일)

◇전국날씨



따뜻한 겨울 12월 기온 평년보다 높아

을 죄울인 12월 날씨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가능성도 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12월은 대륙고기압의 세력 약화로 기온이 평년(영하 5도~영상 9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다"며 "대륙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11월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기온과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2~14도, 35~87mm)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으며 서해안과 강원 영동 산간지방에는 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0월은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기온은 평년(8~19도)보다 높겠으며, 특히 상순과 하순 기온이 평년(10~21도, 6~17도)보다 높겠다.

10월 중순에는 대륙 고기압의 일시적인 확장 및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고 기온은 평년(8~19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유·초등 - 1차(11월 2일), 2차(11월 16일) 시행 / 중등 : 1차 (11월 9일), 2차 시험(12월 14일) 시행예정
2008학년도 시험복수

관점없는 공부는 당비밀 뿐입니다!

국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5일

교원임용무료설명회

온라인 네트워크 학교

www.eduvine.net

법원경매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입찰장 업)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사무실/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면적/층	법정가	최저가
신안동	33평	1억6천만원	5천만원
회정동	모아타워	48평	1억7천원 1억1천원
진월동	33평	9천5백만원	6천4백50만원
매곡동	34평	9천1백1평	5천670만원
연제동	24평	4천5백만원	3천413만원
화동	상가주택	45평 1억6천2평	1억1천2평
도산동	호진	24평 5천2평	3천710만원
금동	대우아파트	33평 6천2평	4천340만원
주월동	현대	31평 9천3평	6천510만원
월계동	건영	36평 1억1천1평	7천700만원
금동동	리인	32평 8천9평	6천230만원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법정가	최저가
신안동	61/49	1억6천만원	1억1천만원
운암동	60/62	2억2천만원	1억8천만원
우동	94/144	2억6천만원	1억4천만원
우남동	188/193	1억6천만원	7천4천만원
누운동	40/34	4억3천만원	3억5천만원
학동도로	110/259	8천1천원	4억4천만원
월남동	109/259	9억5천만원	5억3천만원
증평동	117/295	9억5천만원	5억5천2백평
▶주택			
소재지	대/건	법정가	최저가
월산동	66/30	1억4천9백평	7천9백평
증평동	48/52	1억1천9백평	8천3백평
소촌동	57/55	8천8백평	4천970만원
운암동	41/68	1억4천2천500평	1억5천5백평
오거동	43/50	1억3천4백평	9천840만원
도동	39/41	9천5백평	5천3천3평
증평동	34/17	6천160평	2천760평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법정가	최저가
신원동	500	6천4백평	4천4백평
증평동	61/147	3억920평	2억7천5백평
증평동	100/190	4억4천750평	3억1천5백평
증평동	65/119	3억5백평	2억1천5백평
증평동	56/104	2억4천300평	1억1천5백평
증평동	60/133	1억4천500평	1억1천5백평
증평동	59/195	1억4천750평	8천7천5백평
증평동	47/63	6천5백평	5천5백평
증평동	62/171	5억3백평	2억8천평
증평동	71/162	3억1천500평	1억1천5백평
증평동	55평	2억2천	9천8백평
증평동	48평	8천3백평	3천5백평
증평동	57평	8천5백평	3천5백평
증평동	56평	5천5백평	2천4백평
증평동	53평	5천5백평	2천1백평
증평동	40평	4억4천300평	2억4천500평
증평동	15평	6천3백평	3천5백평
제일오피스	10평	4천	1천7백평
증평동	11평	4천5백평	2천평
구현드림빌	20평	9천5백평	5천3백평
금호월드	15평	7천	3천1백평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생산공장 가격으로!!! 딱 1개월 예약제

난방면적 (m ²)	보일러용량 (㎾)	보일러수기 (kw)	한전 불입금	생산공장 가격	현재대리점 가격	한전등급 포함 소비자 가격
23~27 (7)	500	6kw	250,400	3,700,000	3,230,000	
42~47 (13)	1000	13kw	743,600	3,456,400	4,500,000	4,070,000
49~56 (16)	1200	15kw	884,400	3,615,600	4,850,000	4,320,000
59~69 (20)	1500	19kw	1,166,000	3,634,000	5,680,000	4,720,000

*온수기는 가족수에 따라 용량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100L, 200L, 300L)

속보 주거지의 금년내 심야전기 용량제한

*9월 1일자로 69㎡이상(심야전력 25평)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축열식 심야 전력 초당 공급 용량 제한치 변경.

1차 : 시행일 2008. 3. 3(월) 접수분 부터
변경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초당 50kw까지 공급
변경후: 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